“범부도 성인되는 가르침, 대장경에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

성낙두 경남지사장

4월 27일, 경내 대적광전서
대장경 조성 정신·가치 알려
지구촌 안녕·평화 발원키도


정대요잡 행렬이 해인도를 따라 돌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4월 27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선현들의 고려대장경 조성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며 팔만대장경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고 모든 재난극복과 국민화합,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64회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명고와 명종5타에 이어 해인사 청다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됐다. 1부 기념법회는 해인사 108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 헌향, 헌다, 헌향, 고유문 낭독, 봉찬법요, 법문, 평화메시지, 축사, 발원문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합창단 음성공양, 법보전 합장순례 및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공덕주 헌다례, 소전 및 회향이 이어졌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의 헌다, 내외빈 스님들과 기관장들의 헌화가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했던 뜻을 기림으로써 이 시대의 모든 재난을 극복해 국민이 화합하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달아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과 빈곤이 사라지고 전쟁과 파괴가 멈추어 이 세상이 연꽃처럼 향기롭고 뭇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제불보살에게 고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고려팔만대장경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정표의 기록이며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선지식의 말씀과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산벚나무로 만든 대장경판 속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는 길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범부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팔만대장경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이기적 다툼의 극대화가 아닌 자비공동체를 지향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은 선명상법의 지남”이라며 “우리 다함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명상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해인사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대적광전 마당에서 호국금광명경 합송하며 ‘탑마당-독성각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을 이르는 법보전 합장순례, 공덕주 위패이운, 정대요잡에 동참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13명의 공덕주께 올리는 헌다례와 소전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호국대성사 서산 대사 유훈 기리다

대흥사,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춘계제향

4월 27일, 경내 표충사서
추계제향에 호국대전 준공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27일 경내 표충사(表忠祠)에서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대흥사 표충사 춘계제향’을 봉행했다.〈사진〉

매년 봄·가을에 열리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는 유교식 제례와 법요식으로 진행한다.

대흥사 조실 보선 대종사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서산 스님에게 예를 올리고,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꿈에서 깨어나 장부의 일을 모두 마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해탈’의 환희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며,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오늘 서산대사와 수많은 의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며 “숭고했던 선사의 가르침은 우리의 오늘을 충실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흥사는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상징물이 될 호국대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계제향에 맞춰 호국대전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미륵강탄재·십선계 수계법회

성보박물관 상량식도 봉행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5월 1일 경내 미륵전 앞마당에서 제1258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차기 주지후보 화평 스님,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포교국장 응묵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금산사는 진표 율사가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거대한 미륵불을 만든 후 혜공왕 2년(766)에 연못을 참숯으로 메우고 미륵전을 건립한 5월 1일을 미륵강탄일로 정하고 매년 미륵강탄재를 봉행해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미륵강탄재에 동참한 불자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보시와 계행, 자비심으로 수행 정진해 미륵부처님이 상주하는 도솔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륵강탄재 후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전계아사리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유나 일원 스님, 제환 스님의 인례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회에 동참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공사 중인 금산사 성보박물관부지로 이동해 상량식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계사, 만공 선사 유품 수덕사에 기증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가 4월 25일 기증식을 열고 선지식 만공 선사의 유품을 포함해 총 9점의 불교 유물을 덕숭총림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관장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에 기증했다.〈사진〉

이날 기증된 유물은 △불구석여심족자 1점 △〈참선배워정진하는법〉 △〈경허성우화상설법〉 △성어선니 봉피 외 △청운당 편액 △만공 스님 가사고리 △선복 스님 수저 한 벌 △〈곤몽객만공당설법〉 외 △성오 스님 수계증 총 9점이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 가운데 성오 스님(性悟, 1909~?)이 기록한 〈만공 선사 행장일기〉 등이 포함돼 있어 만공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태화강, 연등으로 장엄하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개막식이 열렸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26일 태화강 국가정원 연등축제 공연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울산시를 밝힌 연등이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큰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순천불교연합회 ‘순천 연등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옛 조상들의 ‘낙화놀이’가 재현돼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불교연합회(회장 범일 스님)는 5월 28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순천지역 사암에서 마련한 ‘순천연등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삼귀의, 연등공양, 축가, 봉행사, 봉축메시지, 시상식, 축사, 발원문, 점등·점화, 연등행진, 낙화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전불교합창단연, 제13회 대전불교합창제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정림)가 4월 25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3회 대전불교합창제를 열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사진〉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인 이번 합창제에서는 △용화사 소리사랑합창단 △보현불교대학 보현불교합창단 △태전사 무수합창단 △BTN불교TV중창단 △연화사 연화사합창단 △대승불교 양우종 니르바나합창단 △진각종 심인합창단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가 참가해 법음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경남 고성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법회

경남 고성불교사암연합회가 4월 27일 고성 송학동 고분군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철탑 빛 조형물로 철기가 유명했던 소가야의 땅 고성의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했다.

고성불교사암연회장 수운 스님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더욱 빛난다”며 “봉축탑에 불을 밝히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에게는 치유의 등이 되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등이 되고, 평화의 등이 되고, 지혜 광명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새롭게 조성된 봉축탑에서 탑돌이를 하며 고성군의 번영과 고성불교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재즈 선율로 물들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7일 경내 극락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2024 천은사 Jazz in lthe Spring-BLUE GIANT’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매년 독특한 음악회를 선보이는 천은사는 이날 색소폰 연주자 신명섭과 피아노 오은혜, 콘트라베이스 전창민, 드럼 이성구, 보컬 백효은 씨가 참여해 영화 ‘블루 자이언트’의 재즈 영화음악을 연주했다.

대진 스님은 “두 해 전부터 재즈의 향기가 천은사에 더해졌다. 삶에 지친 이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온 김인곤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즈음악회에 참가하게 됐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동불교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충북 영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림 스님, 이하 사암연합)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7일 충북 영동천 고수부지에서 ‘화합과 상생의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종림 스님(영동생활실천불교대학장, 황룡사 주지), 명원 스님(사암연합 총무, 반야사 주지), 혜각 스님(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실상사 주지), 혜정 스님(성원사 주지), 도원 스님(향엄사 주지), 문성 스님(덕천사 주지), 중원불교신도연합 김민수 회장,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림 스님은 “오늘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은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한 충북 영동의 불교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의미의 점등식”이라며 강한 화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안군주지협의회, 봉축점등법회

태안군주지협의회(회장 흥법 스님, 태을암 주지)가 4월 30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법회를 태안읍 중앙로 광장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된 봉축탑은 5월 11일까지 태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교구장 도신 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 서산주지연합회장 혜산 스님, 홍성주지연합회장 경보 스님, 당진주지연합회장 상준 스님,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 가세로 태안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안군주지협의회 흥법 스님은 “점등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둠 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거두어 내고 마음에 부처님을 잘 맞이하는 불을 밝혀 일체마장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불청 전북지구 자비의 김치나눔

대불청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가 4월 27일 정읍 대원김치공장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완주 송광사 총무 상견 스님, 임실 덕수암 범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40여 명의 청년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무김치, 열무 물김치 1000kg을 담아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청년회원들이 담근 김치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급식식당과 보리수마을 어르신 일자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주시 효자3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김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마음과 지혜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고 치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